

마테데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만 마음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됨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정제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누군가 나를 매만진다

신윤식

누군가

바다보다 깊은 눈으로
내 삶 밑그림을 내려다본다.

서늘한 바람소리 가르며
가로 세로 엮어내기 시작하고
꼭꼭 여미는 손길을 느낀다.

짜인 생의 그물에
건져 올려지는 내가 있으니
굴곡진 한 면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그곳은 반듯해진다.

누군가의 손끝에서
세월 속 삶이 하나 둘 만들어지고
꽃 진 자리 맺힌 열매
제법 달디 달다.

누군지

자꾸만 나를 매만지며
삶의 편수를 넓힙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2.10.21

발행호수 제20권 43호

여러분은 교회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서 만나는 성도들은 마음에 드십니까? 또 자녀들이 행동하는 것이나 남편이나 아내들은 마음에 드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드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같은 속마음을 감추고 대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메시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요한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인간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당시 요한은 욕에 갇혀 있었는데 이것은 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대하게 보인 세례 요한이었다면 나약하게 해롯에 붙들려 욕에 갇혀 있어서는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요한의 마음에 꼭 들게 행동하셔야 했다면 천군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세상 개혁을 위한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세례 요한의 경우도 요한의 말 한마디에 해롯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죄의 용서를 빌도록 해야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그 누구의 생각과 마음에 들도록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며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태를 장터 아이들의 놀이 비유를 통해서 꼬집고 계십니다.

주일오전설교
눅 7:31-35

이 세대의 사람

32절을 보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면서 이런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쪽 편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편의 아이들은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다시 다른 편이 장례식처럼 곡을 하면 또 다른 편의 아이들이 슬피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상대방이 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음으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들도록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는 장터의 놀이하는 아이들처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며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모인 곳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이 생계를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평으로 삼아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서도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지고 결국 교회조차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교회가 내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도 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보게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내고 타박하기 일쑤입니다.

33,3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은 매우 금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과는 아주 다르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낙타 가죽옷을 입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신들처럼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은 것을 두고 귀신이 들렸다고 매도한 것입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요한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한의 삶을 귀신 들린 것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욕을 하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는 먹지 않은 것을 꼬투리 삼아 비난한 것이고 예수님은 먹은 것을 꼬투리 삼아 비난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이 이 세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와 기대를 이루어주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장터 아이들의 비유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의 특성은 뚜렷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다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방관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비난하고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 죄인인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그 말 씀에 놀란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35절에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까? 이들이 자부하고 있었던 의를 의로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 실천에 힘썼던 자신들의 의가 인정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높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였고 그들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좇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 방식을 스스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결과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옳다함을 얻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옳다고 인정해야 옳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다. 말한 대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의를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혜가 옳았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르면 틀렸다고 하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합니다. 문구 하나를 내 세워서 트집을 잡고 결국 서로가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교파는 거의 이런 방식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자는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을 자신들보다 잘난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자신들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때문에 세례를 요한이 베풀고 자신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요한이 중심이 되고 자신들은 겉으로 밀려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이러한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의 사람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도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도 나를 높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여러분이 지혜의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증거물은 교회도 세상도 내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 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내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그리고 문구들이 은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가령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내용을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글을 읽으면 은혜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가 된다는 말은 틀렸다고 해야 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내용을 읽고 은혜가 된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도 성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기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말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인간의 낙담함을 알게 되고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88편도 다르지 않습니다. 88편을 읽어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절망과 한탄으로 가득한 이 내용이 무슨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1절을 보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의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라는 말이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을 짐작하게 해 줍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재난으로 가득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으로

주일오우설교

시 88:1-18

숨기시는 하나님

(92강 9.23일 설교)

마무리 되는 것이 통상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8절을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절망적 분위기의 한탄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88편은 한탄으로 시작해서 한탄으로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한탄과 탄식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시편에서는 탄식을 하다가도 위로와 희망과 기쁨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탄과 탄식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읽고 은혜 받기가 힘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탄식으로 가득한 이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시편 기자는 어떤 재난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재난은 당사자에게 육신적 고통만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심적 고통까지 안겨줍니다. 그래서 재난을 겪는 사람들이 흔히 하게 되는 말이 **“앞이 캄캄하다”** 는 것입니다. 나아 갈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육신적 고통과 함께 깊은 심적 고통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까지의 내용도 재난으로 인한 저자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짐작하게 해주는 내용인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5절)** 는 내용을 보면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절망적 상황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심한 재난을 겪는다고 해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위로해 주고 편을 들어 보면 심적으로 조금 위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의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기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간혀서 나갈 수 없게 되나이다”** 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을 아는 모든 자가 다 떠났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외로운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합니다. 가벼운 재난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재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긴다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말하면서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는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저자는 다만 14절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는 말로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는 자신을 외면하시는지를 언급할 뿐입니다. 결국 이 저자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까지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왜 이런 상황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신앙 연단을 위해서라면 적당한 시기에 기도를 들으시고 재난에서 건져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88편의 저자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시고 자신을 숨기십니다. 침묵하시고 잠잠하실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자에게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께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응답하지는 분이시기보다는 침묵하시고 잠잠하시고 숨기시는 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항상 느껴지는 것은 잠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신 것은 내가 열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기도 응답하시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붙들어 놓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과는 거리가 먼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뿐이지 그때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고 계신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고난 받은 자라고 하면 우린 대개 읊을 떠올립니다. 읊이 갑자기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읊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읊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읊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

셨습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매우 답답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이 결국 알게 하신 것은 욥이 그동안 누렸던 것들이 욥의 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욥이 누렸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택하여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욥은 많은 소유를 누릴 때에도,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비록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고, 그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 얼굴을 숨기셔서 잠잠하다 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88편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안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납득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문제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신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자의 싸움은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은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세계를 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난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중지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구원 또한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으로 인해서 신자는 어떤 상황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어둠의 길을 거쳐 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침묵하시고 그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세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께 잠잠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잠잠하시고 침묵하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생명으로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든든함입니다.

선 지자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대중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

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용기를 하나 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대표하는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한놈의 아들 골짜기란 곳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데, 말씀의 내용은 역시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그 이유는 유다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용기를 깨뜨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번 깨어진 용기를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그 성읍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 메시지는 분명 대중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다른 거짓선지자와 동일하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말씀 안에서 유다의 미래를 봤습니다. 현재의 안락함도 잠시 동안일 뿐 결국 모두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사람으로 깊이 생각할 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취가 없는 말씀은 말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

수요일설교
렘 19:1-15

목이 곧은
이스라엘

(50장 9.26일 설교)

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70년간 포로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는 누구도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응기를 깨뜨리고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성전 뜰로 돌아와서 모든 백성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15절)고 선포합니다.

유다의 재앙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이것을 목이 곧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말씀으로 성취되는 세상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계속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야 할 만큼 엉터리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왜 우리가 재앙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버티면서 계속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만 생각하는 것이 목이 곧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눈만 뜨면 보게 되는 세상처럼 사는 것입니까? 인간의 본래 마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에는 흥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따먹은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세상에 흥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우상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이고, 따라서 우리 역시 순수히 우상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처럼 생각 합니다. 여기에 칭찬 듣는 행동을 한다면 아마 죄인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

고 마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이 유다의 재앙과 자신은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어떤 세상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질 세상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세상입니까. 이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목이 곧은 백성으로 내가 중심이 된 나만의 세상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매여 있음으로 해서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 외에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다가 원한 것은 이방국가처럼 부요하고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하셔서 강하고 부요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이 자명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예레미야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세대도 목이 곧고 완악하고 고집이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배척하려고만 합니다. 이러한 세대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고 세상은 결국 말씀 안으로 흡수되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결론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허상에 지나지 않은 것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우상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고 우리 또한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에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토대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이 곧은 자로 산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지고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고집이 꺾이며 나 역시 재앙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 진리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회개하면서 참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91(91)장
 교 독 : 20(시33편)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90(98)장
 성 경 : 눅 7:31-35
 말 씀 : 이 세대의 사람(32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76(334)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1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이성희 장로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59(193)장
 기 도 : 도옥희 권사
 찬 송 : 301(460)장
 성 경 : 롬 8:1-11
 말 씀 : 생명의 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188(180)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이영민 장로

■ 교회소식 ■

1. 현재 대다수의 교회가 새로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관계로 은석교회도 2013년부터는 새로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신윤식牧사는 오후에 남광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위해 출타합니다. 오후 예배는 이성희 장로께서 인도하십니다.
3. 신윤식 목사 휴가 : 10.22(월) - 11.2(금)
4. 18일(목) 이인혁, 임수희 성도 가정애 둘째 아들이 탄생 했습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이단 ②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는 구절로 시작된다. 이 구절을 보면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에 두고 있다. 즉 목자 되신 여호와가 내게 좋은 것을 많이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은 목자와 양의 위치에 있는 나와의 관계성만을 두고 하는 말이지 내게 소유가 넘치게 하셨다는 결과에 초점을 둔 고백이 아니란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한 것이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을 주셨으니 더 이상 채워야 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졌으니 교회 역시 복음만으로 충분할 뿐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관심은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고 증거되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 다르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이단이 아닐 수 없다.

간혹 ‘어느 교회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데 혹 이단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단은 의식과 형식의 다름으로 분별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대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는 예배 의식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행한다고 해서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다름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벧후 2:1절을 보면 이단을 멸망하게 할 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거짓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이단을 끌어 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무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자이신 주를 바라보고 주가 가신 길로 따르도록 돕는 역할을 위해 존재한다. 이 역할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왜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이들이 많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자기 확장이다.

신자 개인이든 교회든 자기 확장을 향한 욕망은 결코 복음만으로 만족할 줄 모른다. 복음 전파는 단지 명목일 뿐 실제 꿈꾸는 것은 오로지 자기 확장이다. 그래서 자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다. 사람들의 호기심과 재미를 충족해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만들어 내려고 하고 그것이 성경적인지 복음에 일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채 단지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효과가 있는 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단은 이렇게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여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의 종교성을 자극하여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자신에게 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이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